

삼성생명, 3분기 누적 순익 1.5조... 생보사 자존심 지켰다

신계약 CSM 12.2% 증가로
3분기 순익만 4756억 기록

한화·교보생명은 실적 악화
고금리에 FVPL 손실 잇따라

삼성생명이 국내 1등 생명보험사의 자존심을 지킨 반면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체면을 구겼다. 고금리에 FVPL(당기 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손실로 실적 악화가 불가피했다는 평가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내 생보사 '빅3' 가운데 삼성생명은 유일하게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 1조원을 넘겼다. 삼성생명의 3분기 누적 순익은 1조 4497억원으로 전년 동기(8395억원) 대비 72.7%(약 6000억원) 급증했다.

3분기만 놓고 봐도 삼성생명은 4756억원의 순익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27.7% 증가했다. 신계약 보험계약마진(CSM)은 9564억원으로 전년 동기(8522억원) 대비 12.2% 상승했다.



삼성생명 본사 전경.

/삼성생명

보험영업 부문에서 성장지표로 활용되는 신계약 연납화보험료(APE)는 3분기 7587억원으로 전년 동기(7009억원) 대비 8.2% 증가했다. 특히 보장성 신계약 APE는 전년 동기 4582억원 대비 33.4% 증가한 6113억원으로 집계됐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중신시장 경쟁력을 유지하고 건강보험 신계약 판매 확대를 통한 수익성 중심으로 상품 포트폴리오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생명이 생보사의 자존심을 지킨 가운데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고전을 면치 못했다. 3분기 누적 순익은 한화생명 8448억원, 교보생명 6029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39.6%, 14.2% 감소했다.

한화생명의 3분기 순익은 357억원으로 전년 동기(5337억원) 대비 93.3% 급감했다. 심지어 교보생명은 3분기 329억원 손실을 봤다. 지난해 3분기 1204억원의 순익에서 오히려 적자로 전

환했다.

생보사의 실적 악화 원인으로는 올해 IFRS17과 함께 IFRS9(금융자산 회계 기준) 도입으로 운용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FVPL이 지목된다.

기준 IAS39 기준에선 수익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어 증권의 가치평가가 순익에 반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IFRS9에서는 증권이 FVPL로 분류돼 평가익은 순익에 고스란히 반영된다. 따라서 FVPL 평가 손익 변동성 관리의 중요성이 커졌다.

특히 변액보험과 퇴직보험의 규모가 큰 생보사들은 FVPL 규모가 크다 보니 금리 변화로 인한 변동성에 크게 노출됐다. 업계는 보험부문이 아닌 대외적인 요인으로 투자영역에서 손실을 크게 본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보험판매 실적이 양호했으나 자산 및 투자부문의 평가손실이 실적 악화로 이어졌다.

한화생명의 올해 3분기 신계약 APE는 2조 5651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 3743억원) 대비 86.6% 증가했다. 보장성 상품 판매 확대에 따라 보장성 APE는 118% 증가한 1조 7932억원을 달성했다.

교보생명도 보험부문에서는 328억원의 이익을 거뒀으나 FVPL 손실 영향으로 투자부문에서 768억원의 손실을 봤다. 평가손실 1599억원, 처분손실 1189억원으로 이 부문에서 총 2788억원의 손실이 집계됐다.

보험업계는 금리 상승으로 채권과 투자의 평가이익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분석했다. 고금리에 FVPL 손실 영향으로 FVPL 비중 높은 생보사들이 실적 악화가 불가피했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금리 상승 때문에 보험사들은 투자 및 채권 부문에서 평가손실을 봤을 것"이라며 "금리 같은 대외적인 요인들이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설명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연기에 '급락'

3~6개월 내 동시 승인 가능성 높아
美 긴축종로 예상 등 상승동력 충분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가 내년으로 연기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당초 승인 시점을 내년으로 전망하고 있어 비트코인 가격 상승은 충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9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3만 6400달러대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 16일 3만 7800달러까지 상승하면서 연고점을 기록했다.

이번 비트코인 가격 하락의 원인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연기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계류 중인 모든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연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고 전했다.

앞서 SEC는 브라질 가상자산운용사 해시텍스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에 대한 결정을 연기하면서 연내 현물 비

트코인 ETF를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연내 상장기대가 높았지만,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자 차익매물을 쏟아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장에서는 올 초부터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시기를 내년으로 전망해, 비트코인 상승 가능성은 여전히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스티븐 쇼엔필드 마켓벡터인덱스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3~6개월 내 동시 승인될 것"이라며 "SEC가 최근 현물 ETF 신청을 반려하는 대신 의견을 요청했고, SEC는 최근 그레이스케일과의 소송에서도 패소했기 때문에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GBT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전환을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JP모건은 보고서에서 "SEC는 내년 1월 10일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여부에 대한 첫 번째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구체적 시기는 불확실하지만, 수개

월 안에 승인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또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시그널과 내년 4월 비트코인 반감기가 예정되어 있어 상승 동력은 충분하다.

직전 반감기인 2020년 4월에는 비트코인 가격은 5000달러에 불과했지만 12월 말에는 2만 7000달러까지 상승하면서 8개월 만에 440%가 상승한 바 있다.

4년 주기로 이뤄지는 비트코인 반감기는 전체 발행량이 2100만개로 제한된 비트코인의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현상이다. 비트코인 총량에 다가가면서 비트코인 채굴 보상은 점점 감소해 비트코인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비트코인 가격은 최근 한 달 새 40%가량 상승하면서 잠재적 호재로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줬다"며 "현재 시장은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 뿐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v2665@



서울 시내 아파트.

/뉴스1

서울 집값 26주째 상승... 매수 관망세

'목동 대림' 한달 새 5000만원 ↑
정비사업 기대 단지 위주 거래
매수심리는 2주 연속 하락세

최근 매수 관망세 확산으로 거래가 위축되며 제한적인 가격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매매가격이 26주 연속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매수심리는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19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5% 상승했다. 관망세를 보이며 전주(0.05%)와 같은 수준의 상승률을 보였다.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5월 첫째 주(0.01%) 이후 55주 만에 상승 전환돼 26주 연속 오름세다.

권역별로는 동북권에서 성동구(0.08%→0.10%)가 성수·금호동 중소형, 광진구(0.08%→0.07%)는 자양·광장동, 용산구(0.11%→0.10%)는 이촌·산천동 주요단지, 동대문구(0.12%→0.10%)는 제기·전농동 위주로 상승했다. 서남권에서는 강서구(0.09%→0.08%)가 염창·화곡동, 양천구(0.09%→0.11%)는 목·신월동 역세권, 영등포구(0.09%→0.11%)는 당산·여의도동 위주로 상승했다.

동남권의 경우 강동구(0.13%→0.12%)는 고덕·암사동 대단지 위주로 오

름세가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선호단지 및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단지 위주로 간헐적인 거래가 유지되고 있다"면서 "매수·매도자간 희망가격 격차로 거래심리가 위축되는 등 전체적으로 관망세를 보이며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목동 대림'은 지난달 전용면적 84㎡가 12억 5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9월 매매가격(12억원) 대비 5000만원 상승했다.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고덕 그라시움'의 경우 이달 전용면적 73㎡가 14억 5500만원에 거래되면서 지난 8월(14억 4000만원) 대비 1500만원 오른 가격에 거래됐다.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2주 연속 하락했다. 11월 둘째 주(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7.0으로 전주(87.6)보다 0.6포인트 떨어졌다.

매매수급지수는 한국부동산원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설문해 수요와 공급 비중(0~200)을 지수화한 수치다.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울수록 집을 팔려는 사람이, 200에 가까울수록 사려는 사람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김대환 기자 kdh@

정부, 진료비 게시 등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추진

농림축산식품부·금융위 업무협약
보험·수의업계 간 협력 적극 협조

농림축산식품부와 금융위원회는 19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전시장에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외에 대한수의사회장, 손해보험협회장, 동물병원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함께 실천할 의지를 다지고 협력을 약속했다.

최근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수요가 확

대되고 양육비의 약 40% 수준이 병원비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월에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협약에 따라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개체식별 강화를 위한 생체인식정보를 활용한 반려동물등록, 반려묘 동물등록의 무화 등을 검토하고, 다빈도 중요 진료비 게시 및 진료 항목 표준화를 추진한다. 금융위는 보험 가입·청구 등의 관련

절차를 간소화, 새로운 보험 상품 개발 및 다양화 지원,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을 허용한다. 아울러 양 부처는 보험·수의업계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통한 진료비 부담완화에 반려인이 동물의료 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농식품부와 금융위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상근 기자 skc8472@